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140-026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국립중앙박물관회 | 135 Seobinggoro, Yongsan-gu, Seoul, Korea 140-026  
전화 : (02)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

# 박물관 사람들



2009년 겨울 28호



銅을 주재료로 사용하였기에  
유기의 기원은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乙卯年銘靑銅壺杆는 광개토태왕릉의 사당에서 쓰인 집기로  
경주 노서동 호우총에서 출토되었다.



## Contents

기획	4	유기
	8	생명을 담는 그릇
문화칼럼	13	우리 조상들의 먹는 일에 대한 생각
선비들의 문화사랑	16	겸재 정선의 <청풍계도>
회원마당	18	나의 愛藏品 蒐集記
	21	한국 무덤, 소망과 그리움의 곡선
회원기고	24	애프터가 없는 허전함이어
인터뷰	26	문화는 창의성의 원천
박물관 소식	27	태양의 아들, 잉카문명
학술상 수상논문	28	百濟 金石文 資料의 分類와 形態的 分析
박물관 둘러보기	33	청아함으로 빛나다
	34	국립중앙박물관회는



# 유 기

기획 | 글\_ 조 애 경

집안 大小事가 있을 때마다 온 식구가 마당에 모여 열심히 유기를 닦아 반짝반짝 광을 내던 시절이 있었다. 생활연료로 연탄을 사용하면서 어머니들의 정성스런 손길을 받으며 빛을 발하던 유기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값싼 플라스틱 그릇들로 채워졌다. 편리성과 생산성이 중시되면서 쓸쓸히 자기 자리를 떠나 어느새 추억 속으로 사라져갔다.





02

01 각종 중, 지름(大) 16.9cm, 높이 6.9cm, 대구방짜유기박물관

02 乙卯年銘青銅壺杆, 경주 노서동 호우총, 고구려, 높이 19.4cm, 국립중앙박물관

03 金銅製 大鉢, 공주 무령왕릉, 백제, 지름 17.7cm, 국립공주박물관



03

유기는 정성과 예를 다하는 제사의 그릇으로, 식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반상용기로, 또한 농업활동의 정서적 표출에 이용되는 농악기로 사용되었다. 그 외에 佛家의 종·바라와 같은 소리도구로, 화로·촛대·대야·요강 등 일상생활용품으로 다양하게 쓰였다. 유기란 놋쇠로 만든 그릇을 말한다. 구리를 주성분으로 하여 주석이나 아연, 니켈 등을 혼합한 합금재를 넓은 의미로 놋쇠라고 칭했다. 놋쇠는 한자로 ‘鑪’라 하는데, 여러 고문헌에서 유석, 유철, 유납, 진유, 황동, 청동, 주석, 향동, 노감석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난다. 각 물질을 섞는 비율과 기술에 의해 색깔과 질이 결정된다. 합금재의 이름만으로는 그 성분과 특성을 알 수 없으나, 구체적으로 유기의 성분을 전하는 기록들이 남아있다. 明代 曹昭는 『格古要論』에서 “유석이란 자연동으로 품질이 정교한 것을 말한다. 노감석을 鍊成하여 이루어진 것을 유라고 한다.”라고 했다. 그 외에 『육조전례』, 『경국대전』 「공전」, 『세종실록지리지』 등에서 놋쇠와 관련된 기록들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유기의 기원은 청동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재료가 銅을 기본으로 하는 합금재로 만들어졌고 그것을 거푸집에 부어 청동기를 만들어냈다. 검·창·방울·거울 등이 남아있고, 다수의 거푸집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직접 주조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청동기는 철기가 유입되면서 점차 사라졌다가 삼국시대에 들어오면서

많이 사용되었다. 출토유물의 성분분석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질 좋은 熟銅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경주 노서동 호우총 출토물인 乙卯年銘青銅壺杆는 고구려 기물제작의 수준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광개토태왕릉의 사당에서 쓰인 집기의 하나로 신라 영토에서 발견된 고구려 공예품이라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이다.

백제의 금속공예기술은 특유의 독자성을 가졌다. 세련된 기술을 가진 백제가 일본에 제련과 세공기술을 전해 주었음이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금동제 大鉢은 청동제 발우이며, 부여 능산리 출토 백제금동대향로는 백제 기술의 백미이다.

신라와 통일신라시에는 금속의 재료와 기술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다. 유석이 유기의 재료가 되었으며 이 합금을 ‘新羅銅’이라 하여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졌다. 『삼국사기』에 ‘철유전’을 ‘축야방’으로 고쳤다가 후에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철과 유석을 다루는 기구가 설치되었음



04

04 사하리(佐波理) 加盤, 통일신라, 日本 正倉院

05 숟가락과 젓가락, 고려·조선시대, 이봉주 소장



05

을 알 수 있다. 백률사 약사여래상을 비롯한 많은 불상과 황룡사 대종과 성덕대왕 신종은 뛰어난 기술의 결정체이다. 일본 正倉院에는 통일신라의 금속공예품인 접시, 대접, 숟가락, 가반, 합자, 병 등 많은 생활용품이 보존되어 있다. 사하리 용기가 여럿 전하고 있는데 사하리란 銅과 15~20%의 주석을 합금한 것으로 響銅으로 분류된다. 고대 일본에서 사용된 사하리(さはり)라는 용어는 신라의 '사발'이라는 그릇 형태를 칭하는 명칭이 일본으로 전해진 뒤 재질을 뜻하는 용어로 변했고, 유기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석청동, 즉 불그스름한 고운 빛깔의 '高麗銅'을 만들어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졌다. 제작기술의 발달로 얇고 정교한 銅器를 제작하였다. 낫쇠의 사용이 평민층에까지 확산되어 생활용기와 농악기, 그리고 범종과 향완, 금강령, 정병 등 뛰어난 佛具가 만들어졌다. 그밖에도 동활자와 화포, 동전 등도 주조되었다. 식기로 보이는 현존하는 낫그릇들은 동체가 아주 얇고 질기며, 구리와 주석의 합금을 방짜기법으

로 제작했다. 문헌에도 “식기로 쓰이는 유기 재료는 동과 주석만의 합금이 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좋은 낫쇠가 사람의 건강에 좋은 재료임을 그 당시에 벌써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얼마나 뛰어난 조상들의 지혜인가. 그리고 방짜식기가 주물식기보다 앞섰음도 알 수 있다.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관청관할의 유기뿐 아니라 민간 수공업도 발전해 갔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낫그릇을 생산하는 匠人을 鑪器匠이라 칭하고 중앙과 지방 관아에 여럿 배치했다고 한다. 건국 초기부터 국가에서 직접 원석 채굴에 힘썼으며 세종 때는 유기 무역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대마도에서는 토산물을 받치며 유기를 원했다고 한다. 승유억불 정책에 의해 불구의 제작 대신에 식기를 비롯한 제기·생활용품들의 생산이 활기를 띠었다. 영조 때 유득공은 『京都雜誌』에 “통속적으로 낫그릇을 중요시하여 사람들은 반드시 밥, 국, 나물, 고기까지 일체의 식탁용기로 낫그릇을 사용한다. 심지어는 요강, 세숫대야까지도 낫쇠로 만든다.”라고 기록하여 당시 낫그릇이 대중화되었음을 알려준다. 곳곳에 낫점이 설치되고 수요가 늘면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만들어졌다.

유기는 제작하는 방법과 합금재료에 따라서 '주물유기', '방짜유기', '반방짜유기'로 구분된다. 주물유기는 불에 녹인 쇳물을 일정한 틀에 부어서 만들어낸다. 쇳물의 성분이나 배합 비율에 따라 자유롭게 합금할 수 있고, 두



06



07



08

- 06 주물유기. 대구방짜유기박물관  
 07 방짜유기. 동산도기박물관  
 08 반방짜유기. 대구방짜유기박물관

들겨 만드는 방법인 鐵造로 만들 수 없는 특이한 형태도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물유기는 이미 성형된 상태이기 에 금속조직이 밀집되어 불에 달구어 두드리면 늘어나지 않고 갈라지거나 깨지고 만다. 질 좋은 놋쇠는 전통적인 유기제작 기 법인 방짜로 제작되었으나 조선 중엽에 들어서면서 수요가 늘 자 대량생산이 가능한 주물기법으로 유기를 만들게 되었다. 일 정한 합금비율로 만들어지던 방짜유기에 비해 주물유기는 구리 에 주석, 아연, 납 등이 혼합된 합금으로 만들었으며 잡쇠라 하 여 ‘통짜’, ‘통쇠’라 불렸다. 하지만 주물제작인 경우에도 식기류 는 반드시 구리와 주석만의 합금으로 만들었다. 주물유기점을 통점, 방짜유기점은 놋점이라고 했으며 통쇠로 만든 그릇은 통 성기, 놋쇠로 제작된 그릇은 놋성기로 구별하여 불렀다. 안성유 기는 일반인들이 주로 쓰는 ‘장내기’와 사대부 집안에서 주문하 여 제작한 ‘모춤’으로 나뉜다. 주문 제작했던 아담한 크기의 유 기는 그 모양과 품질이 좋아 ‘안성맞춤’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 도로 명산품이 되었다.

방짜유기는 구리와 주석의 합금비율이 정확히 78:22로, 우리 나라 특유의 금속기법으로 제작된 유기를 말한다. 놋쇠 덩어리 를 불에 달구어가면서 메질을 되풀이해 얇게 늘어가며 형태를

잡아가는 기법이다. 망치로 두드리는 공정을 거치므로 휘어지 거나 잘 깨어지지 않고 메자국이 은은히 남아 있는 것이 제품의 큰 특징이다.

반방짜유기는 주물기법과 방짜기법을 함께 사용하여 만들며 ‘궁구름옥성기’로도 불린다. 전라남도 순천지방에서 제작하는 오목한 형태의 작은 식기나 요강 등을 만드는 기법이다. 궁구름 은 공구의 이름이며, 옥성기는 윗부분이 오목한 그릇을 말한다. 먼저 주물기법으로 그릇을 U자 모양으로 만든 다음 여러 차례 불 에 달구어가면서 오목하게 패어진 곱돌 위에 놓고 궁구름대라는 공구로 오목하게 생긴 부분을 방짜식으로 늘여 가면서 만든다.

제작방법과 합금재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검은 쇠덩이가 유 기 특유의 노르스름한 빛을 발하기 위해 장인의 굵은 땀방울과 정성이 담겨야 한다.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의 부지런한 손질까 지 필요로 하는 것이 유기이다. 생산이나 사용, 모든 것이 만만 치 않은 기물이다. 이러한 유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들 삶도 부단 히 연단하지 않으면 빛과 가치를 잃게 된다는 이야기가 마치 교 훈처럼 들려왔다. 🐼

# 생명을 담는 그릇

기획 | 글 \_ 정혜리

고요한 밤 둥근 달이 높이 떠올라 세상사의 번잡함을 잠재울 때, 鑰器間의 불은 밝혀지고 화덕은 뜨겁게 달아오른다. 빨간 불꽃이 하얗게 연소 되는 순간 鑰器匠은 눈을 반짝이며 쇠물을 퍼 올린다. 분주한 손놀림이 이어지고 여기저기서 나는 망치소리로 대낮같은 생동감이 넘쳐 난다. 사람들이 서서히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되면 우리 고유의 그릇 방짜유기는 노란 빛을 발한다. 은은한 광택이 아침 햇살을 닮은 듯하다.



방짜란 ‘품질이 좋은 놋쇠를 녹여 부은 다음 다시 두드려 만든 그릇’이란 순 우리말이다. 한자로는 ‘方字’로 표기하며 ‘良大納清成器’라고도 한다. 큰 놋제품을 많이 만들던 평안북도 정주지방의 납청이 놋그릇의 본산지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대는 방짜의 사투리이다. 그릇의 밑바닥에 ‘方’자가 찍혀 있어 방씨가 만들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고 한다. 또한 그릇의 명성이 높다보니 ‘매우 알차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반복되는 메질(망치질)과 열처리로 만들어지는 방짜 유기는 떨어뜨려도 잘 깨지거나 휘지 않고, 남아 있는 메자국이 품격을 더해 유기 중에 으뜸이다. 특히 타악기는 방짜 기술만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기물로 꼽힌다. 명나라의 『天工開物』에서도 “향동은 구리에다 주석을 넣은 합금으로 악기를 만드는데 사용한다. 악기를 만들 때는 온전한 한 개의 덩어리를 단조해야지 몇 개의 부품을 납땜질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또 많이 두드린 것은 음색이 낮고 적게 두드린 것은 높다며 가공 공정의 기술도 언급하고 있다.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면 꼭꼭 싸두었던 놋기를 꺼내 닦는 것으로 집안 행사를 시작했다. 그 시절 어머니는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놋그릇이 반짝반짝 윤이 나게 만들었다. 잘 닦은 제기에 정갈한 음식을 올려놓아야 집안이 평안하다고 믿어 손이 시린 줄도 몰랐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놋그릇은 언제나 겸손하다. 늘 음식을 돋보이게 한다. 빛나지만 요란하지 않고 주위를 감싸 안는 포근함이 있다. 추운 겨울, 늦게 들어오는 식구를 위해 아랫목에 묻어 놓은 놋사발의 밥 마냥 따뜻하다. 우리의 그릇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투박한 어머니의 손처럼 힘든 공정을 거치지만 그 안에는 넉넉함과 온기가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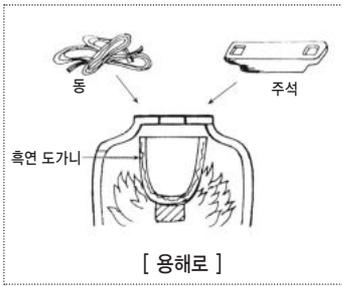
방짜유기의 제작은 11명이 한 팀을 이뤄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진다. 조직의 우두머리인 원대장을 비롯하여 앞망치, 결망치, 센망치, 가질대장, 네빔대장, 갯대장, 박풍구, 안풍구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박풍구가 풀무질로 화덕의 온도를 높이면 갯대장이 순동 16냥(1근)에 주석 4냥5돈의 비율로 합금하여 도가니에 넣어 1200℃ 이상으로 용해시킨다. 온도계가 없던 시절이어서 갯대장은 오랜 경험을 통해 불꽃을 보며 온도를 측정했다. 보통 불꽃이 붉은 빛에서 흰빛으로 변할 때가 가장 적당한 온도이며, 불꽃을 확인해야 하기에 작업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다. 온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될 때 쇳물을 퍼내 기름 바른 주형틀인 물판에 붓고 그 위에 툯밥을 뿌려준다. 산소의 침입을 방지하고 열을 서서히 식혀 쇳물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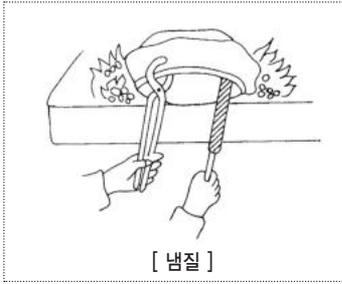
02

01 구첩반상기, 대구방짜유기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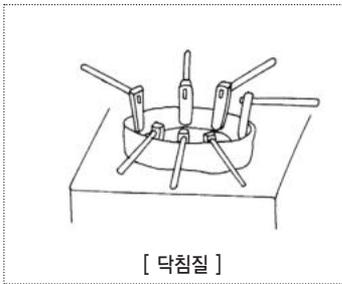
02 유기점의 부질작업장면, 김준근, 『기산풍속화첩』, 조선 19세기말



[ 옹해로 ]



[ 냄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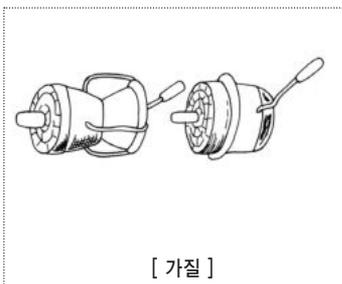
[ 닥침질 ]



[ 제질 작업 ]



[ 담금질 ]



[ 가질 ]

조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놋쇠의 형태가 둥글 납적한 바둑알 같다하여 '바둑'이라 불렀다.

안풍구는 미리 준비된 바둑을 불에 달궈 놓는다. 달궈진 바둑을 네뿔대장이 재빨리 강철틀인 모루 위에 올려놓는 동시에 적당히 돌려주면, 깃망치 1명, 센망치 2명이 한조가 되어 메질을 하여 늘리는 작업을 반복한다. 이것을 네뿔질이라 하며 네뿔한 모양을 원형으로 만들기 위해 가위로 종이를 자르는 것처럼 험도질을 한다. 넓혀진 바둑을 다시 불에 달궈 모루 위에 놓으면 망치꾼들이 쳐서 늘이고, 그 위에 달궈진 바둑을 겹쳐 계속 망치질을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바둑 10개 정도를 겹쳐 놓으면 원대장은 이 한 짝을 잘 달구어 메질을 하여 U자형의 완제품 형태를 갖추는데, 이 과정이 우김질이다. 한 개씩 우기면 얇아서 빨리 식어버리고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장을 겹쳐야 했다. 우김질 된 바둑을 하나씩 떼어내는 작업을 냄질이라 하며 떨어진 하나를 우개리라 한다. 우개리를 불에 달구어 형태를 잡는 작업을 닥침질이라 하는데 닥침꾼 6명이 닥침메를 내리치는 동시에 자기 몸 쪽으로 당기면서 쳐 늘리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형태가 잡히며 징, 팽과리도 모양새를 갖춘다.

방짜유기 제작은 끊임없는 불과의 싸움이다. 온도가 조금만 식어도 메질하는 동안 깨질 수 있어 온 신경을 집중했다. 대장들의 지시에 따라 그릇은 바로바로 달궈졌다. 닥침질이 끝난 기형을 계속 불에 달구어 가며 성형하는 제질 과정을 거치면, 원하는 형태가 완성되고 다시 불에 달구어 재빨리 찬물에 담그는 담금질을 하게 된다. 담금질하기 전에는 눈만 흘려도 깨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약하다. 520℃ 이상의 器物을 냉각수에 넣어 硬度를 강화 시킨다. 기물은 찬물에 넣는 순간 형태가 일그러지는데 이를 바로 잡아 주는 공정이 벼름질이다. 앞망치가 벼름질 공구로 불에 달구지 않은 상태의 기물을 메질해서 모양을 잡는다. 특히 약기의 음색은 벼름질로 가늠하는데 소리를 들으며 작업해야 함으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벼름질이 끝난 후 놋쇠 특유의 색이 나오도록 표면 전체, 또는 일부를 깎아내는 것이 가질이다. 이때 비로소 우리 그릇이 은은하게 빛을 발한다. 기형에 따라 메자국을 남기거나 원을 그려 넣기도 한다. 이런 복잡하고 정교한 공정 끝에 탄생한 것이 방짜유기이다. 지금은 기계의 힘을 빌려 많이 간단해졌지만, 우리 장인들은 오랜 경험에 의해 현대 과학이 탄복하는 뛰어난 그릇을 만들어 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금속 공출이라는 명목하에 유기제품이 탈취되는 수난을 겪었다. 유기 제조 금지령까지 내려져 유기공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며 기술력이 쇠퇴되고 일상과 단절되었다. 해방 후에는 수요가 급증하여 절정을 이루었으나 연료가 장작에서 연탄으로 바뀌자 다시 된서리를 맞는다. 독한 연탄가스에 의해 색깔이 변하자 사람들은 닦기 번거로운 놋쇠보다 알



鋤器間の 모습



03

03 물판 원형틀 지름 9.0cm

04 바둑판지름 16.0cm, 팽과리 반제품

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그릇을 선호하게 되었다. 놋쇠그릇은 슬며시 자취를 감추었다.

불꽃이 되살아난다. 웰빙 바람과 더불어 방짜유기는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삶의 질이 중요시 되는 오늘날에 가장 적합한 그릇이다. 방짜유기의 놀라운 효능은 과학으로 증명된다. 일반 그릇은 음식이 담겨 있는 시간이 길수록 세균이 발생하며 서서히 변질되어 간다. 그러나 방짜그릇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0-157 병원균을 완전히 소멸시킨다. 놀라운 일이다. 또한 잔류 농약이 묻은 음식을 담았을 경우 그릇의 색깔이 변한다. 쉽게 변색되는 단점 때문에 외면당했는데, 다시 그 이유로 각광 받으니 유기그릇의 운명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런 놀라운 비밀의 열쇠는 구리와 주석의 합금에 있다. 구리는 미생물을 균계 만드는 살균 효과가 있는 금속이다. 그러나 강도가 약하여 그릇으로 부적당해서, 강해서 깨지기 쉬운 주석을 넣어 균형을 맞추었다. 78:22의 황금 비율로 구리와 주석을 섞어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거기에 끊임없는 열처리와 메질을 더해 잘 깨지지 않는 견고한 그릇을 만든 것이다.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로 현대과학이 놀라는 그릇이 탄생했다. 생명까지 보호해 주는 그릇, 방짜유기이



04

다.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들고 신비의 종을 만든 민족답다. 장인들의 손끝에서 마법의 연금술이 피어났다.

방짜유기는 장점이 많은 그릇이다. 꽃을 꽃으면 오래도록 싱싱함을 유지하고, 그릇 자체에서 미세하게 미네랄을 생성하여 생명력을 불러일으킨다. 보냉 · 보온의 성질이 있어 음식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켜 맛을 좋게 해준다. 쓰면 쓸수록 윤이 나며 새것 같다. 물론 단점도 있다. 직접 불에 닿으면 깨질 수 있어 火器와의 접촉을 피하는 게 좋다. 조금만 방심하면 쉬이 녹슬수 있으므로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조금 불편하면 어떤가. 올바른 먹거리를 찾아 직접 텃밭을 가꾸고 전원생활을 동경하는 시대이다. 우리 고유의 방짜그릇을 소중히 여길때, 나와 가족의 건강도 지켜진다.

한동안 사라졌던 놋그릇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이제 식탁 위에 은은한 놋그릇을 올려보자. 우리의 생명을 담은 그릇은 아끼고 보듬어 주면, 숨결을 느끼듯 더욱 반짝이며 빛을 발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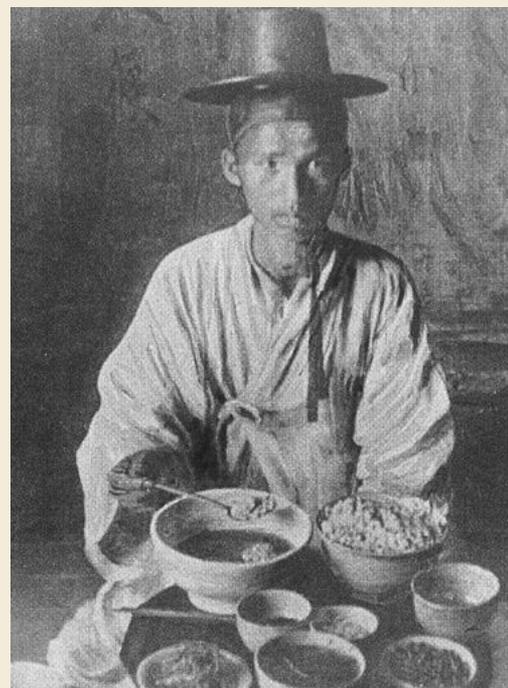
# 우리 조상들의 먹는 일에 대한 생각

| 글 \_ 정연식 \_ 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의식주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순서가 잘못되었다. '食衣住'로 바뀌어야 한다. 음식은 옷보다, 옷은 집보다 절박한 생활조건이기 때문이다.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욕구를 갖고 있다. 하나는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구체적으로는 식욕으로 표출된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생명체는 필연적으로 죽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대로 죽어서 자취 없이 사라질 수는 없으므로 자신의 분신인 2세라도 남기고 가려는 욕망을 갖고 있다. 2세를 남기려면 성적 결합이 필요하다. 그 욕망은 구체적으로는 성욕으로 표출된다. 결국 식욕과 성욕은 인간이 생명체로서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고 본능이다. 그래서 「맹자」에는 告者가 孟子와 논쟁을 벌이면서 食과 色을 선과 악을 가를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요 본능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이 나온다. 하지만 식욕은 성욕과 나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욕망이다. 논리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어 하루만 금욕을 해 보면 어느 욕망이 더 강렬한지 몸으로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다.

인류가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이래 사람이 하는 활동의 대부분은 먹고사는 일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지금도 그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민족은 유달리 먹는 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런 경향은 우리말 속에 녹아 있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느니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여러 군데 그 흔적이 보인다.



01

01 밥 먹는 나그네



02



03

어떤 사물을 평가할 때에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좋은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천한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예컨대 철쭉꽃은 봄철의 대표적인 꽃으로서 산철쭉, 영산홍, 왜철쭉 말고도 셀 수 없이 많은 관상수가 개발되어 있어 학술적으로도 무엇을 철쭉이라 정의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정도이다. 아름다움으로 말하자면, 생김새가 비슷하면서 철쭉꽃보다 먼저 피는 진달래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진달래는 ‘참꽃’으로 높여 부르면서 철쭉꽃은 ‘개꽃’으로 푸대접을 했다. 이유는 지극히 단순하다. 진달래는 먹을 수 있지만 철쭉꽃에는 로도톡신이라는 독성물질이 들어 있어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다. 먹을 수 있는 나리꽃은 ‘참나리’, 먹지 못하는 나리꽃은 ‘개나리’라 불렀다. 복숭아도 꽃이 예쁘든, 안 예쁘든 열매가 작고 신 것은 ‘개복숭아’라고 한다. 절에서 스님들이 새싹이 나올 때 잎을 따서 나물로 무치거나 튀겨서 먹을 수 있는 나무는 ‘진짜 중 나무’라는 뜻으로 ‘참죽나무’라고 부르고, 참죽나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잎을 먹을 수 없는 나무는 ‘가짜 중 나무’라고 해서 ‘가죽나무’라 부르는데, 지방에 따라서는 ‘개가죽나무’라고도 부른다.

꽃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음

식으로 먹어서 체감했다. 서양에서는 식탁을 아름다운 생화로 장식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궁중 儀軌에 등장하는 그림을 보면 밥상을 장식하기 위해 상 위에 올려놓는 床花나 연회석을 장식하기 위해 항아리에 꽂아놓는 樽花는 종이, 천, 밀랍 등을 이용하여 만들고 정작 예쁜 생화는 음식에 넣어 먹었다. 그래서 삼월 삼짇날에는 진달래화전을 부쳐 먹고, 9월 중양절에는 국화화전을 부쳐먹었다. 담장 아래 핀 장미꽃도 초여름에 적당히 보고 즐기다가 따서 화채를 만들어 먹었다. 빨갛고 예쁜 원추리꽃은 비빔밥 위에 얹어 잠시 꽃 모양을 감상하고는 곧 나물과 고추장에 비벼 뭉개서는 손갈로 떠서 입에 넣어야 했다. 아름다움은 먹었을 때 완벽하게 감상되는 것이다. ‘멋’이란 말도 실상은 ‘맛’에서 유래된 것이다. 맛있는 것은 당연히 멋있고, 맛있는 것은 아무리 예뻐도 멋대가리 없는 것이다. 맛은 아름다움에 우선한다. 그래서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유달리 먹는 일을 중시해서 하루 시간을 밥 먹을 때로 구분했다. 서양 사람들은 ‘모닝’을 먹지 않고, 중국인이나 일본인은 ‘자오(朝)’나 ‘아사(朝)’를 먹지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02 궁중잔치상 재현 「조선시대 향연과 의례」 전시중

03 국화화전

04 김홍도의 「단원풍속도첩」에서 점심.  
밥주발이 매우 커서 오른쪽 아래 어린아이가 잡고 있는  
밥그릇도 그 크기가 만만치 않다.



04

유달리 ‘아침’을 먹는다. 아침은 해가 떠서 사방이 밝아지는 때가 아니라 자고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는 때로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관념이 적어도 몇 백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의 뇌리에 담겨 있었다는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 한 예로 16세기 중종 때 편찬된 「訓蒙字會」에서는 ‘時’를 ‘때 시’라 하지 않고 ‘𪛗(끼니) 시’라 풀이했다. 우리말의 ‘때(時)’와 ‘끼(食)’는 아주 옛날에는 ‘𪛗’와 ‘𪛗’였다. 글자 모양으로도 알 수 있듯이, 두 낱말은 원래 같은 말에서 갈라져 나온 말이다. 앞에서 예로 든 ‘맛과 멋’, ‘납다와 늑다’, ‘맑다와 물다’, ‘가르다와 고르다’ 처럼 같은 말에서 파생된 두 말을 언어학에서 雙形語 또는 두블레(doublet)라고 부르는데, 이 ‘때’와 ‘끼’가 바로 전형적인 쌍형어이다. 그래서 지금도 ‘세 끼 밥’을 ‘세 때 밥’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인사말도 그렇다. 우리말에는 “밥 먹었습니까?” 하는 인사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종종 우리나라가 하도 끼니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서 이런 인사말이 생겨났다고 생각하곤 하는데 이는 잘못 짚은 것이다. 이 말은 서양사람들이 아침에는 “굿 모

닝” 하고 저녁에는 “굿 이브닝” 하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에는 “(아침)밥 먹었습니까?”, 저녁에는 “(저녁)밥 먹었습니까?” 하며 인사를 나눴던 것이다.

우리 민족은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먹는다고 표현한다. 담배 먹고, 물먹고는 그러저럭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잇어먹고, 떼어먹고, 마음먹고, 욕먹고, 귀먹고, 겁먹고, 나이 먹고, 풀 먹이고, 화장이 잘 먹고, 대패가 잘 먹고, 물 먹이고, 옛 먹이고, 한 방 먹고, 한 골 먹고 심지어는 챔피언도 먹는다.

우리 조상들이 먹는 일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영양 과잉이 사회문제가 되어 소식 열풍이 불고 있지만 많이 먹으면 온몸에 에너지가 충만해진다. 우리 민족이 20세기 후반 단기간에 이룬 기적적인 경제성장도 왕성한 에너지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니 먹는 일에 대한 관심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



謙齋 鄭欽, 清風溪圖  
조선 1739년, 견본담채, 133 x 58.8cm, 간송미술관 소장

# 겸재 정선의 <청풍계도>

| 글 \_ 최순우

겸재 정선은 서울의 인왕산과 북악산 사이의 자연을 매우 즐겨서 사생 대상으로 삼았던 모양이다. <仁王霽色圖>를 비롯해서 지금의 서울 청운동 일대에 널려 있었던 계곡미를 그린 가작들이 유달리 많이 남아 있다. 즉 ‘壯洞八景’이라고 일컫는 일련의 대소 작품군이 그것이며, 이 <청풍계도>도 바로 이 장동팔경중의 일경을 그린 것이다. 이제까지 알려진 장동팔경 그림 중에서도 이것이 가장 큰 작품이어서 소위 겸재체 진경산수가 지닌 본바탕을 흔연하게 드러내 주는 회심의 작품이라는 느낌이 깊다.

온 폭에 거의 하늘의 공간을 남기지 않는 대담한 화면 포치법과 스산스러우면서도 어딘가 호연한 시심이 넘나드는 독특한 분위기가 몽클한 감명을 안겨 주는 것은 아마도 정을 다해서 길들인 우리 산하의 실감에서 오는 감상인지도 모른다. 거친 斧劈皴를 수직으로 반복해서 단숨에 그려 내린 겸재체의 독자적인 皴으로 이루어진 크고 작은 암벽들과, 단층을 이루면서 다급하게 높아지는 대지와, 암벽 위에 치솟은 장송들 그리고 이름 모를 고목들의 우람한 風姿는 화폭의 중앙부 거의 저변에 그려진 작은 인물과 나귀의 크기와 대조되서 이 청풍계의 깊고 그윽한 풍치를 실감나게 해 주고 있다. 농담을 가려 쓴 흑색 주조의 화폭 전면에 담록색으로 담담한 설채가 있으나 화면 저변에 작게 그려진 나귀의 안장만은 선명한 악센트를 이룬 것이 주의를 끌 만하다. 겸재의 산수화에는 간혹 이러한 生彩의 효과를 노린 기도가 발견된다.

화면 우측 상단에 ‘己未春 寫 謙齋’란 한 관지가 있어서 이 작품이 겸재의 63세 작업임을 알 수 있으며, 그의 63세는 1739년 영조 15년에 해당한다. 겸재는 84세를 누리면서 만년에 돋보기를 곁집이 받쳐 쓰고서 정력적인 작가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그의 63세야말로 바야흐로 예술의 원숙한 결실기에 들어서는 때였을 것이다. 이 작품은 그러한 제작 연기와 아울러 그의 기념할 만한 걸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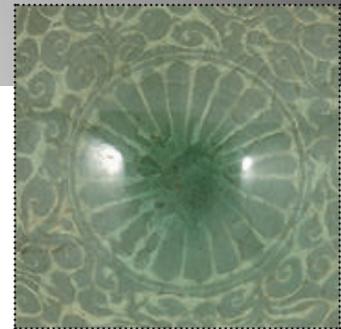
## 崔淳雨

1916년 개성에서 태어났다. 순우는 필명이고 본명은 희순(熙淳)이다. 1943년 개성 부립박물관에서 근무를 시작해 1974년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취임하였다. 박물관장 취임 직후 박물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 우리회의 시작인 '박물관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저서로는 『한국미술개설』, 『한국미 한국의 마음』, 『한국회화』 등이 있으며, 유고집으로 『최순우 전집』,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가 있다.

『나는 내것이 아름답다』 - 학교재, 2002 中에서



01



## 나의 愛藏品 蒐集記

| 글 \_ 오순섭 \_ 회원

01 青磁象嵌菊花唐草文盃과 안쪽 세부, 고려시대, 국보 제115호, 국립중앙박물관

고맙게도 국립중앙박물관 무료관람이 허용되고 있다. 공짜는 마음을 즐겁게 한다. 우리 역사와 문화의 정수를 한곳에 모아놓고 공짜로 감상할 수 있게 해주니 고마운 일이다. 더 고마운 점은 전시유물이 수시로 교체되고, 때때로 기획특별전, 테마전시를 하니 갈 때마다 새롭고 흥미가 배加된다는 점이다.

지난 겨울, 나는 아내와 대학에 다니는 큰 아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둘째 아이를 데리고 중앙박물관을 찾았었다. 내가 느꼈던 감동과 기쁨을 가족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었다. ‘반구대 암각화 모사도’에서부터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아이들의 자세가 흐트러지더니 정천사지 10층 석탑을 배경으로 2층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쯤에는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닌가!

“야! 우리 가족이 언제 박물관에 다시 올 수 있겠냐? 아는 만큼 보이고, 본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넉넉하고 영혼이 풍요로운 사람이 될거야!”

설득 반, 협박 반, 가족들을 더욱 몰아치며 ‘베트남 청동북’ 위에 있는 두꺼비에 대한 설명까지 기어이 마쳤다. 그리고 가족들도 나만큼 행복하리라 믿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의 분위기는 냉랭하였다. 나는 가족과 분리되었다.

“아니, 아이들을 잡으려고 해요. 나도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유물인지 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애들이 아빠가 무서워서 짝소리 못하고 있지, 제대로 듣거나 했는지 알아요?”

아내의 편지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도 나만 아는구나! 그렇다면 어찌지? 박물관 답사는 나 혼자서 해야 하나?’ 이러한 상태에서 국립중앙박물관회의 특설강좌를 신청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의 것을 살펴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알찬 강좌들을 들으면서 ‘박물관에서 나만의 유물을 정해보려는 권유를 받았다. 그 순간 ‘아! 이것으로구나!’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다시 한번 박물관의 전시 유물들을 살펴며 나의 애장품을 찾기 시작했다. 발품을 팔아보니 마음에 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갈등이 심했지만, 욕심을 털어버리고 고르고 골라 내가 애장하기로 작심한 것이 이것이다.

애장품을 고를 때의 기준은 ‘아름다움’이었지만, 내 것으로 삼은 다음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아름다움’은 물론 ‘역사적 의미’가 특별하다는 것이었다. 나의 애장품은 ‘靑磁象嵌菊花唐草文罍’ 또는 ‘국화녕쿨무늬 완’으로 불린다. 고려시대 청자의 전성기, 귀족문화가 농염하게 꽃피었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청자 찻그릇이다. 높이가 6.2cm, 입구의 지름이 16.8cm, 굽의 지름이 4.4cm이다. 청자의 편년상 비색청자가 절정기를 넘어 상감청자로의 길을 모색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상감청자로서는 연대가 밝혀진 것 중 最古의 작품이다. 1159년에 사망한 文公裕의 墓誌와 함께 발견되어 그 연대가 분명한 작품이기에 청자 및 상감청자의 연대를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귀중하고도 귀중한 작품이다.

삿갓을 뒤집어 놓은 듯한 형태로 굽에서 아가리에 이르는 선이 완만하게 퍼져 나간 형태다. 안쪽 한 가운데에 큰 꽃무늬를 역상감 기법으로 새겼는데, 滿開한 국화 한 송이로 보인다. 그리고 아가리의 안쪽 빗면에는 당초문을 생동감 있게 역상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가리 부분의 안과 밖은 날렵하게 당초문 띠를 돌렸다.

바깥쪽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중심 다섯 곳에 국화를 한 송이씩 두고 있다. 꽃은 흰색, 잎은 검은 색으로 상감하였는데 이 검은 색의 국화잎 상감이 그릇의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게 하고 있다.

회청색 계열의 비취빛 유약이 매우 맑고 고르게 씌어져 있어서 표면의 색조가 은은하다. 나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는 것은 찻그릇 한가운데 모여 있는 유약이 주는 느낌이다. 찻그릇의 주인이 한 잔의 차를 음미하면서 찻그릇을 탁자에 내려놓자 빗면에 남아 있던 찻물이 아래로 흘러 고여 있는 듯, 맑고 투명하다. 다시 잔을 기울이면 흘러내릴 듯 고여 있는 850년 전의 맑은 찻물이 나를 흥분시킨다. 전성기의 고려청자가 대부분 그러하듯 전체적으로 유약이 맑고 투명하여 태토가 주는 느낌을 그대로 살려주며, 경쾌하고 명랑한 맛을 주고 있다. 이 찻그릇과 관련하여 아쉬운 대목도 있다. 즉, 이 상감청자는 직접 발굴에 의해 정확하게 수습된 것이 아니라 골동품상으로부터 구입한 것이어서 학술적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1986년 12월의 조사 결과, 1926년 12월 9일 경성의 고미술상인인 이 케우치(池內虎吉)에게서 마제석검, 중국자기, 청동거울 등 15점의 유물과 함께 구입한 것으로 학술적 자료로 받아들여지기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아울러 이 찻그릇은 문공유의 사망시점인 1159년으로부터 불과 13년 전에 매장된 인종의 長陵 청자류와 비교하면 문양기법에 차이가 보이고, 오히려 명종 智陵 출토 청자류와 유사한 조형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13세기 초에 後葬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나의 애장품은 국보 115호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마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니 고마운 일이다. 일주일에 한번씩 중앙박물관에 들릴 때마다 보관 상태를 점검한다. 가끔은 제자리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른 곳에 전시를 위해 출타를 하는 듯하다.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대여전시를 하는 것이 꽤 씬한 일이긴 하지만, 나의 애장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이니 참기로 한다.



02



03



04

02 노서동 출토 금목걸이, 보물 제456호, 국립중앙박물관

03 은제주자, 고려시대, 미국 보스턴미술관

04 白磁鐵畫葡萄文壺, 국보 제107호,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애장품이 제자리를 지킬 때면, 나는 애장품 앞에 서서 실눈을 뜬다. 뜨거운 마음의 물을 찻그릇에 따른다. 그러면 바닥에서 850년 전 국화송이가 차로 우려져 한잔의 국화차가 준비된다. 그 다음이 중요한 순간이다. 마음을 가다듬고 양손을 살그머니 내밀어 따뜻하게 데워진 찻그릇을 감싼다. 눈을 감고 한 잔의 차를 마신다. 온 몸이 따스하게 데워지고 차향이 온몸으로 퍼져 나간다. 찻그릇을 탁자위에 놓으면 이제 손에 묻은 국화향이 코 끝을 자극한다. 찻그릇의 바깥에 상감된 다섯 송이 국화의 향기가 양손에 스뻘다가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것이다.

나의 박물관 사랑을 외면했던 가족들을 내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에게 줄 선물을 찾고 있다. 멋진 것을 골라 선물하면 우리 가족들도 흥미를 가지기 시작할 것이다. 관심 분야가 같은 가족을 가진다는 것, 역시 설레는 일이다.

먼저, 중년의 한가운대를 지나고 있는 아내에게는 역시 장신구가 제일 환영받을 만한 물건일 게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신

라의 목걸이다. 대학 4학년인 아들에게 적당한 것을 고르기가 참으로 어렵다. 많은 고민 끝에 고른 것이 '은제금도금주자'이다. 아들 세대는 세계를 무대로 살아야할 운명이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전자'가 보스턴 미술관으로 돌아가더라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가끔은 보스턴에 들어서 내가 준 선물을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새내기인 딸아이에게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물건이 더욱 의미 있을 터이니 이것을 선물하기로 하자. '白磁鐵畫葡萄文壺'가 그것이다.

이 선물들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면 이번 주말에는 모두를 이끌고 각자의 소장품 보관 상태를 확인하러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할 것이다. 이번에는 너무 욕심내지 말고, 가족들을 몰아치지도 말고, 쉬엄쉬엄 여유있게 야외 전시물도 살펴보면 좋겠다. 많이 보여주고 싶은 욕심을 자제해야 할텐데, 서늘한 바람의 도움을 바란다. 🍂

# 한국무덤, 소망과 그리움의 곡선

| 글·사진 \_ 임명희 \_ 회원

겨울 햇살이 따스하던 어느 날, 나지막한 언덕의 양자쪽에 자리 잡은 봉분들이 평온한 느낌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우리의 무덤에는 외국의 묘지에는 없는 어떤 특별함이 있다고 느껴졌다. 그것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만든 서정적인 풍경이 아닐까.



우리나라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圓形封墳은 땅 속에 주검을 매장한 후에, 그 위에 흙으로 둥그렇게 봉토를 하여 잔디를 입혀 만든다. 봉분은 죽은 이의 존재를 지표 위에 상징적으로 가설해 놓은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不在에 대한 시각적 장치이고 죽은 이를 이미지로 대응하여 표현했다는 점에서 영정사진의 기능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덤을 원형으로 만든 것은 무덤을 만든 살아 있는 자의 마음을 반영한다고 본다.

나는 지난해에 서민들의 무덤인 民墓의 원형봉분을 사진작품으로 표현하여 개인전을 한 적이 있었다. 카메라의 초점을 봉분에 맞춘 것은 그 곡선이 아름다워서였지만, 나의 눈은 연이은 봉분들의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가다 그 리듬에 맞춰 너울너울 춤추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봉분의 곡선은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우리 마음의 고향에는 늘 한국적인 線이 있다. 뒷동산의 능선, 구불구불한 시골길, 장독대의 향아리, 조롱박, 요강, 흰 고무신, 초가지붕, 한복 등 수없이 많다. 무엇보다도 한국무덤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 역시 둥그런 곡선에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어렸을 때 어른들은 밥이나 곡식을 고봉으로 담아주었는데, 밥그릇에 복스럽게 담긴 밥이 이루는 곡선이 봉분의 곡선과 같은 모양이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까지 천여 년 이상 이어오고 있는 원형봉분의 형태를 이루는 곡선이 주는 정서적인 친근감과 아름다움을 한국의 조형미와 연결시켜 보았다. 동글납작한 봉분의 곡선은 노년기 지형 특유의 둥굴(roundness)의 형태적 특성을 가진 한국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많은 무덤들이 연이어 이루는 곡선은 우아한 율동감을 안겨준다. 그리고 젓가슴 모양의 봉분은 자못 리드미컬해서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진다.

한국의 자연은 끊어짐이 없이 이어져 흐르는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산들의 축소판처럼 보이는 공동묘지나 宗中の 무덤에서 나는 어떤 율동을 보았다. 무덤가의 풀들이 바람에 흔들리자 수많은 同形同質의 무덤들이 반복적인 리듬으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 같았다. 무덤들의 사열식 속에서 서 있는 동안 나는 잠시 어지러움을 느꼈다. “춤추는 선이 어떻게 율동감을 주느냐고 물으면, 그것을 설명하기보다 감상하는 편이 더 쉽다. 결국 선 그 자체는 움직이지도 않고 춤추지도 않으므로 선의 흐름을 따라서 춤추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라는 미술평론가 Herbert Read의 말을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한국의 무덤은 무덤에 아늑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背山臨水이고 남향의 경사진 구릉에 많이 있다. 오늘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무덤은 젓가슴 모양의 원형봉분이다. 이 원형봉분은 ‘봉분’과, 봉분의 뒤에 반달 모양으로 흙을 쌓아 담장 역할을 하는 ‘莎城’, 봉분과 사성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龍尾’로 되어 있다. 약간 경사진 비탈에 만들어진 젓가슴 모양의 원형봉분을 측면에서 보면, 용미가 살짝 들려 올라가면서 봉분과 사성을 연결하여 곡선의 긴장과 느슨함의 절묘한 조화로 리드미컬한 역동성을 느끼게 한다. 또한 소화기관의 연동운동처럼 어떤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나 무덤가를 찾아 온 우리 눈에 봉분이 항상 곡선의 아름다움으로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넓은 시야로 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는 돔(dome)형의 플라네타륨(planetarium)처럼 무덤을 싸고 있는 봉분은 그냥 흙더미가 아니다. 봉분은 이곳에 주검을 묻어 두었다는 표지이기 전에 그리움의 응결체이다. 또한 그것은 여성의 몸을 닮은 부드러운 선으로 이어져 어머니의 젓무덤 같은 포근한 품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그 품에 안기면 가



슴 속 깊은 슬픔을 달래줄 것 같은 위로의 힘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생명을 잉태한 듯 불룩한 봉분의 형상은 인간이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는 귀소본능과 죽음이 삶의 다음 과정이라는 자연의 순리를 무언으로 말해주는 듯하다.

내가 본 무덤들은 사람처럼 각 봉분마다 인상과 분위기가 조금씩 달랐다.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만든 봉분이지만 주변의 자연 속에서 각자의 풍경을 만들어 가는 듯 했다. 선율에 맞추어 춤추고 있거나, 가슴이 시리게 고독하거나, 소박하고 따뜻한 인간성을 가졌거나, 지난 삶이 억울하여 깊은 한을 버리지 못하였거나, 욕망을 체념하고 순화되어 가는 등 무덤의 인상들은 사람처럼 다양하였다.

봉분은 위에서 볼 때는 원형이며 정면에서 보면 반원형이다. 땅 위로 솟아 올라온 것 같은 半球의 봉분은 죽음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는 에너지가 봉분 안에서 부풀어 올라와 밖으로 불룩하게 팽창하는 힘을 느끼게 한다. 또한 반구의 봉분이 지면에 붙어있는 모양은 일출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형태는 흙이 생명

을 흡수하고 다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죽음을 넘어선 다음 세상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의 표상으로 생각된다.

동양인들은 道는 모든 존재 내에 내재해 있으며, 만물은 근원적으로 평등하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생태계를 장엄한 생명의 場, 커다란 조화와 공생의 장으로 파악하였고, 인간을 대자연의 일부로 보아 자연과의 합일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산을 숭배하였고, 하늘과 산과 사람을 한 몸으로 생각하였다.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하나의 커다란 유기체로 이해하였다. 한국무덤에는 풍수 지리적으로 좋은 장소에 조상을 잘 모시기 위한 유교의 효사상이 깃들어 있다. 또한 봉분과 자연은 조화로운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어 동양적 자연관이 잘 표현된 곳이다. 결국 인간과 자연은 영원히 한 몸으로 살아 갈 것이고, 우리는 그 자연의 일부이었다.

무덤가를 거닐다 보면 이러한 숭고한 자연의 이치가 부드러운 무덤의 곡선처럼 너울너울 깨달아질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이 든다. 🐾

# 애프터가 없는 허전함이어

| 글 \_ 진 수 옥 \_ 회원

추운 계절이 왔다. 날은 춥고 밤은 길다. 바로 이야기의 계절이다.

이야기하면 박물관만큼 많고 풍성한 재료가 있는 곳도 드물다. 유물 하나하나에도 들어있고, 너른 마당에서 보이는 남산에도, 거울못을 돌아서며 만나는 역세에도 이야기는 널려 있다. 다만 그 많은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줄 사람이 아쉬울 뿐이다.

박물관 언저리를 맴돈 지 십여 년이 훌쩍 넘었다. 처음엔 멋진 유물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다녔다. 차츰 답사를 다니면서부터는 그 시대를 산 사람들 이야기에 흠뻑 빠져서, 또 자연풍광이 전해주는 이야기에 빠져서 다녔다. 지금은? 지금은 박물관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재미로 다닌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제일 큰 이유다. 친구들과끼리 강의 듣고 같이 밥 먹고 전시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커다란 즐거움이다. 서로 만나면서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더불어 인생을 사는 지혜도 넓어졌다. 그러면 굳이 수업을 듣지 않고 따로 모임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겠다. 괜히 박물관을 앞에 내걸어 문화적으로 있어 보이는 척 할 필요 없이 말이다.

그런데 그건 아니다. 박물관이라는 장소가 있기에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강좌를 듣거나 오가며 전시를 보고, 답사를 다니며 훨씬 풍성한 이야깃거리가 생긴다. 그런데 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사 오면서 이 모임이 허전해졌다. 이사 온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허전함은 아직도 메워지지 않는다. 아마 조만간 힘들거다. 세월이 지나야 메워질 수 있는 거라서.

허전함이란 몸이 느끼는 허전함이다. 머리로는 강의도 듣고 멋진 그림도 보고 뿌듯하다.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갈 때면 여지없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 쉽게 걸어서 갈 수 있는 식당이 박물관 안에 있는 두세 군데 밖에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식당은 깨끗하고 번듯하지만 주인과 눈인사를 하거나 한 두 마디 말을 건네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그 때마다 그리운 곳이 경복궁 주변 골목길의 밥집들이다. 아울러 인사동 삼청동의 좁은 골목길들, 크고 작은 식당들과 찻집 그리고 그 동네의 사람 냄새 물씬 나는 풍경들이다. 식당이건 찻집이건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야 발길을 붙잡는데 용산엔 그런 곳이 없다. 박물관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뭔가 비슷한 이웃 동네가 없는 거다. 박물관

관을 나서면 갑자기 나타나는 큰 길과 건너편 아파트 숲이 참 생경하기도 하고 밋밋하게도 보인다. 갑자기 이야기가 끊기는 느낌이 든다. 이미 차를 타고 장소를 옮기면 이야기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사람이 밥만으로는 살 수 없다지만 밥도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다. 밥을 떠나서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답사를 가거나 외국 여행을 갔을 때 그곳 음식을 먹어보는 일이야말로 그곳 문화를 몸으로 체험하는 일이다. 지금도 답사여행으로 처음 간 실크로드를 떠올리면 둔황의 석굴과 사막의 낮선 풍광이 먼저 떠오르지만 그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 음식도 잊을 수 없다. 투르판에서 맛본 크고 시원한 수박, 달고 향기로웠던 건포도, 이스트 없이 구운 빵의 담백한 맛이 생각난다. 아! 또 있다. 우루무치의 아침을 열던 부드러운 밀크티. 이후 난 밀크티를 좋아하게 되었다. 이밖에 또 다른 여행지를 떠올릴 때면 어김없이 특유의 음식과 식당의 고유한 분위기들이 생각나고 그 기억들 덕분에 여행의 추억은 훨씬 풍요롭다.

그저 맛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아니더라도 우리 몸은 음식으로 장소를 기억하고 이야깃거리를 만든다. 그건 단지 여행에서만 아니다. 일상에서도 음식을 만들고 먹고 하면서 무진장한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이 다 쌓여서 문화가 된다.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집집마다 부엌이 썰렁해졌다. 식구수도 줄고 외식이 늘었으니 당연하다. 가끔씩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부엌처럼 깨끗하지만 온기 없는 부엌과 마주하면 참 쓸쓸해진다. 여기 사람 사는 집이 맞기는 한걸까. 도대체 무엇을 해먹고 살까하는 생각이 들면 거기 사는 사람의 삶이 황량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용산의 박물관에 오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건물은 잘 지었고 그 속의 찬란한 유물은 빛난다. 하지만 규모가 이미 우리 몸의 한계를 넘어서 거대하다. 그래서 몸은 지치고 피곤하다. 달래줄 여유 있는 공간이 아쉽다. 어떤 장소가 자주 가고 싶어지려면 머리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몸도 만족스럽고 싶다. 전시를 보러오는데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냐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전시도 보고 근처의 맛있는 식당에서 밥도 먹고 하면 훨씬 즐겁지 않을까. 맘에 드는 찻집 때문에 부근을 배회하다 사람도 만나고 그러다 인생길을 바꾸기도 하는 게 우리 삶이다. 어쩌면 꼭 필요한 일은 아니더라도 하다 보면 그 일 때문에 인생이 풍성하고 넉넉하게 변하기도 한다. 어찌 꼭 필요한 일만 하고 살 수 있을까. 효율성을 따지면 문화는 설 자리가 없다.

시간이 흘러 용산의 박물관 주변이 넉넉해지고 다양해지길 바란다. 건물과 유물들만 말고 그 곳을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야기로도 풍성해지길 바란다. 🐼



# 문화는 창의성의 원천

| 정리 \_ 하 영 남

국립중앙박물관과 우리는 올해 9월부터 '창조적 경영지도자 최고위 과정'을 개설했다. 각 분야의 석학들을 강사로 모시고 문화·예술·인문학을 망라하는 강좌와 전시설명·현장답사·공연관람 등 다양한 현장 체험의 기회도 있다. 현재 강의를 듣고 있는 (주)삼양사 김윤 회장의 수강 소감을 들어본다.

## 1. 강좌를 듣게 된 계기는?

지인의 추천으로 강좌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커리큘럼의 다양성과 전문성에 절로 관심이 생겼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문화유적 등에 관한 강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생각했는데, 영화·디자인·음악·브랜드 그리고 문화경영까지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강의 주제가 모두 독특했다. 각 분야의 권위자들로 구성된 강사진도 마음에 들었다. 또한 아내가 평소 문화 활동에 관심이 많아 함께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해 체계적인 강의를 듣는 것은 처음이어서 기대가 되었다.

## 2. 첫 수업에 참석한 소감은?

이어령 전 장관의 강의가 기억에 남는다. 그 분은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주는 분인데, 책이나 글로 접하던 분을 직접 만나니 좋았다. 2교시 수업인 갤러리토크는 재미있는 시간으로 생각된다. 대개 사전정보 없이 전시관을 둘러보게 되면 전시물에 담긴 이야기와 배경을 알기가 쉽지 않다. 한데 학예연구관들의 깊이 있는 설명을 들으면서 얘기를 나누다보니 전시물에 담긴 역사를 자세하게 알게 되어 유익했다.

## 3. 현재까지 진행된 강의 중 두 분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강의는?

송승환 대표의 '세계를 흔든 차별화 전략, 난타'를 꼽고 싶다. 난타 공연을 보았는데, 우리 것을 세계화한 성공적인 케이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한다. 아내는 황병기 선생님의 강의를 꼽는다. 아내와 함께 황병기 선생님의 '국악사랑 해설 음악회'를 들은 적이 있다. 어렵게만 느꼈던 국악을 구수한 해설과 함께 들려주셨다. 이번 '한국음악' 강의에서도 우리 한국음악의 멋을 쉽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 4. 기업 경영인으로 문화의 효용가치를 언제 절감하는지?

문화는 기업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창의성의 원천이라고도 볼 수 있다. 때로 인문학이나 문화 강의를 듣다보면 경영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인재관리, Product, Service, Process 등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순간적으로 떠오를 때가 종종 있다. 강의 덕분에 자주 박물관을 오가며 우리 옛것에 관심이 많아졌다. 현재 진행 중인 광화문, 승례문 재건사업도 새로운 시야로 보게 된다. 직접 유물들을 보니 시각이 예전과 달라지고 그만큼 애정이 커졌다. 문화의 효용가치를 수치로 측정할 수 없지만 기업 활동에 매우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 박물관 소식 |

## 태양의 아들, 잉카문명

올 겨울,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태양의 아들, 잉카문명' 전시가 12월 11일부터 열린다. 이번 전시는 세계문명전의 일환으로 페루 고대문명의 다양성과 찬란한 잉카문명을 보여줄 것이다.

전시에서는 잉카문명의 기원인 고대 안데스 문명의 유물을 소개한다. 안데스인들의 신앙체계와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나아가 물질문화에 반영된 고대인의 사상을 탐구해 본다.

또한 나스카 유적, 생활문화, 직조물, 미라 등 프리 잉카의 다양한 문화와 함께 모체문명 최대 왕국인 시판의 유물을 비롯한 찬란한 황금 유물도 소개된다. 잉카제국 마지막 도시였던 마추픽추의 발견 당시 상황, 역사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잉카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시대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기록 등을 제시한다.



# 百濟 金石文 資料의 分類와 形態的 分析

| 글 \_ 박중환 \_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부 학예연구관

## 1. 연구의 배경과 자료의 범위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한국 고대사에 대한 연구는 사료의 부족에서 비롯한 한계와 함께 기록 간의 내용 불일치라는 중첩된 어려움을 안고 있다. 기록 내용 사이의 부정합 문제는 사료 비판의 과정을 거쳐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연구상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보다 사료량 자체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백제사의 경우 고구려나 신라보다 사료 부족의 문제가 더 심하다. 그 현저한 예가 『三國史記』의 각국 관련 서술 분량 차이이다. 이러한 사료 부족의 문제 때문에 고대사 연구의 모든 영역에서 명문을 가진 금석문 자료가 중요한 비중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백제 금석문의 분야에 주목한다면,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 자료들의 사료적 가치에 비추어 충분히 비중있게 다루어져 왔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또다른 사료원인 백제 금석문에 대한 연구가능성의 확대를 위하여 그 기초적인 분류와 형태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백제 금석문과 같이 다종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금석

문 자료의 시간적 위치와 분량,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은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유형과 그 도출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백제 금석문 자료를 제작 시기별, 재질별, 기능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초적 분류작업은 백제 금석문이 가지는 자료로서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금석문 자료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 요소에는 명문을 남기는 기술적 측면이나 자료의 규격, 문자의 형태에 해당하는 서체의 문제들이 포함된다.

한편 자료의 범위와 관련하여 ‘금석문’이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소극적 語義는 금속질이나 석질 재료를 가지고 鑄造 혹은 書刻한 문자 자료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는 그 어의가 함축하고 있는 뜻으로부터 木製나 土製 문자 자료까지를 포함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의 연구환경을 감안하여 보다 넓은 의미의 금석문으로 자료의 범위를 넓혀서 다루고자 한다.

## II. 자료의 시·공간적 분포

먼저 백제 금석문 자료에 대한 시·공간적 분포에 대한 기초적 검토를 했다. 한성기의 경우 금석문 자료의 양이 많지 않으면서 한 군현 등 외부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외래 자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성기 중심부의 자료에 대한 조사가 미진한 데서 기인한 현상일 수도 일부 있지만, 백제 문자 사용의 초기 단계 환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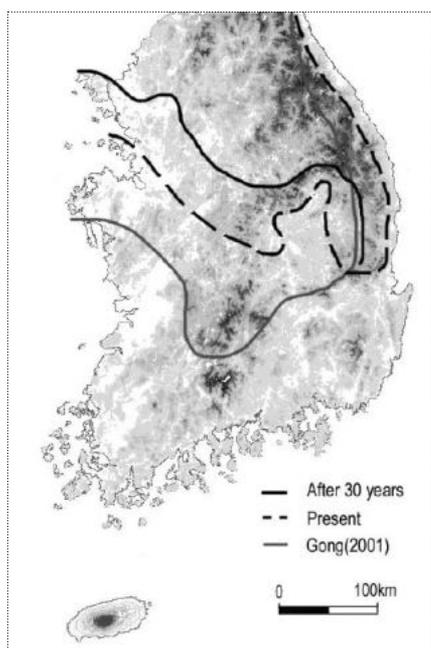
‘中方銘磚’

거문도나 청주처럼 백제 중심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이른 시기 금석문 자료들이 산발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이 유물들은 백제의 국가권력과 정치적 집중력이 강화되지 못한 단계의 한반도 남서부지역에서 소규모 지역 집단들이 한 군현이나 중국 지역과 직접적인 교류를 행할 수 있었던 백제 국가 형성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았던 웅진기에는 자료의 수량과 역사성에 있어서 무령왕릉 출토 유물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령왕릉 출토 유물 역시 중국 남조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지만, 그 속에는 백제의 토착적 문화 요소와 백제인들의 전통적 사유가 외래요소들과 混濬된 현상이 반영되어 있다. 사비기에는 금석문 자료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 양도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와에 도장글씨를 찍은 인장과나 목질 금석문 자료인 목간이 이 시기에 처음으로 나타나면서 백제 기록문화는 보다 풍부한 내용을 갖추게 된다.

## III. 재질, 기능, 명문기법

금석문 자료의 재질에 대한 연구는 많은 경우 유물의 보존 문제 때문에 파괴분석이 용이하지 않아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석문 자료의 재질에 대한 파악은 흔히 육안 관찰이라는 불완전한 방법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방법은 그 성과가 제한적이고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서, 새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사암 계통일 것으로 여겨지는 사택지적비의 석질이 화강암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은 그 두드러진 예이다. 칠지도의 경우 탄소가 다량 포함된 硬鐵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제작방법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은 鍛造가 아니라, 鑄造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목제 금석문 자료인 목간 중에는 대나무 소재의 죽간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백제에서 죽간이 사용되지 못했던 것은 당시의 기후 환경 하에서 백제 중심지역에 대나무가 자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왕대속 대나무류 분포 북한계선의 변화

금석문의 기능은 명문을 담고 있는 금석문 자료 자체의 기능과 거기에 담긴 명문의 기능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銘文專用 金石文’과 ‘補助銘文 金石文’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비시대 인장와에 찍힌 도장 글씨들이 도성의 행정구역인 5부를 나타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지만 이는 기와 건축물 내에서의 위치나 제작시기, 제작자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듯 하다. 이들 백제 인장와에서는 도장 글씨의 숫자에 있어서 짝수를 고수하는 경향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백제인들이 가지고 있던 숫자에 대한 관념의 일단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웅진기 벽돌 무덤 내부에 사용될 墓塼에, 향후 배치될 위치를 표시하는 기능의 문자를 남겼던 것은, 웅진기 건축분들이 모델로 했던 중국 남조 건축분의 전통이었음이 알려져 있다. 사비시기의 인장기와들도 이러한 웅진시기 건축분 명문전의 위

치 표시 기능에 영향받은 것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무령왕릉의 축조에 사용된 墓塼들은 송산리 인근의 공주지역 내에서 제조된 것이 아니라, 부여 정동리 가마에서 제조된 것임이 알려지고 있다. 왕릉 건조에 소요되는 건축부재에 대한 공주-부여 양 지역 간의 이러한 수급관계는 두 지역이 6세기초부터 이미 밀접한 공동 생산체제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공주와 부여 두 지역이 가지는 이러한 생산체제와 수급관계는 웅진기의 명문전과 사비기의 인장와가 상호 밀접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제조되고 사용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신라나 고구려와 달리 백제의 금석문에서 국토의 영역을 표시하는 척경비 성격의 석비가 알려져 있지 않는 점도 주목된다. 이에 대해서는 마한의 중심지 병합을 통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마한 전체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백제 영역확장 과정의 특수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 백제 금석문 명문의 기능

분류	기능		금석문 명
	유물의 기능	명문의 기능	
銘文專用 金石文	묘지석, 묘지		무령왕릉 출토 誌石
	발원비(발원문)		사택지적당탑비
	행정구역 표시석		‘前部’명 標石, ‘上部前部’명 標石
	기타 (물품전달 부찰, 신분증명서,통행 증명서,행정문서,제사용祭具 등)		부여지역출토 목간
補助銘文 金石文	刀劍	下賜文	七支刀
	팔찌	제작자, 제작년월일, 소유자 표시	‘다리작’명 팔찌
	佛像	발원문	‘정지원’명 금동삼존불입상
	불비상	발원문	연기지역 佛碑像
	舍利장치	발원문	‘창왕’명 사리감
	기와	사용위치표시문	부여·익산지역 출토 印章瓦
	거푸집	무게단위	‘一斤’명 거푸집
	화폐	화폐단위	五銖錢

명문 기법은 음각과 양각, 압인, 묵서, 상감 등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었지만 음각에 의한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백제 유물의 금상감 금석문인 칠지도의 경우 金絲가 溝로부터 탈락되지 않도록 하는 보강작업을 거치지 않은 미발달된 상감 기법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감 기술의 미숙성은 이 금석문 자료가 금상감을 이용하여 만든 가장 초기 단계의 유물임을 말해 주고 있다. 또 그러한 사실은 명문 내용의 해석에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IV. 외형적 특징과 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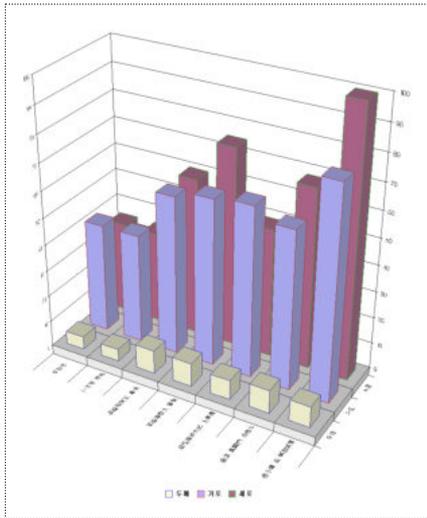
금석문 자료의 형태적 특징에 있어서는 백제 목간의 규격과 무령왕릉 지석의 외형적 특징이 주목된다. 백제 목간의 일반적 인 크기는 신라 목간의 그것에 비하여 대체로 10cm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흥미롭게도 일본 목간의 평균 길이와 유

사한 것이다. 이러한 목간 규격의 유사성은 백제와 일본 지역 목간 사용의 전개 과정과 상호 간의 영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무령왕릉의 지석은 梁代 묘지의 예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소규모이며, 서식 또한 단순하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東晋代에 유행한 假葬墓誌와의 유사성이 지적되고 있다. 무령왕릉의 지석이 성왕대 당대의 것인 梁代의 묘지를 모방하지 않고 보다 이른 시대인 동진대의 가장묘지들을 모방했던 것은, 당시 백제 왕실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자료일 수 있다. 무령왕대와 성왕대의 백제인들이 한강유역의 회복에 대한 절실한 염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염원을 기반으로 남천한 東晋 사족들의 중원 회복 의지에 공감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령왕릉 묘지와 중국 남조 묘지 규격의 비교

墓主	墓誌 크기(cm)			行數	一行당 字數
	가로(너비)	세로(길이)	두께		
무령왕	41.5	35	5	7행	8~10字
무령왕비	41.5	35	4.7	4행	12~13字
梁桂陽簡王 蕭融	60	60	9	20행	28字
梁桂陽敦王 蕭象 (蕭融의 아들)	63	75	9	40행	35字
梁桂陽國太妃 王慕韻 (蕭融의 부인)	64.4	49	7.5	31행	23字
南京 堯化門 북쪽 王侯墓 (南平元襄王 蕭偉로 추정)			12		
南京 麒麟門 白龍山 王侯墓 (臨川靖惠王 蕭宏으로 추정)	60	68	9		
燕子磯 梁 輔國將軍	80	100	8		

- 심사평 -



무령왕릉 묘지석과 남조묘지석의 규격



'直銘磚'

백제 금석문의 서체는 이른 시기인 한성기부터 매우 세련된 면모를 보인다. 이는 같은 시기 신라 금석문의 古拙한 서체와 비교되는 것으로 양지역의 중국문화 수입양상과 문화 발달 수준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백제 서체의 발달은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에 기인한 것이지만 名迹 소장예 대한 열의와 같은 문화적 풍토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제 금석문의 대표적 유물인 무령왕릉 지석의 서체에 대하여 북조 서체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 견해가 있었지만, 무령왕릉 지석의 서체에 대한 검토 결과 북조적 영향이 우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적극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백제시대에 제작된 금석문들을 망라해 그 외형적 특징을 다각도로 검토한 것으로, 금속질과 석질 이외에 土質과 木質의 문자자료도 모두 다루었다. 역사연구의 本源史料로서의 금석문 자료는 그 銘文 내용의 해석과 활동에 앞서 고고유물로서의 성격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쓰여진 이 논문은 시기별 분류를 통해 백제 금석문의 전모를 제시한 후, 그 재질과 기능성을 살피고, 명문기법, 규격과 書體를 중심으로 형태적 분석을 시도한 力作으로서 주제의 독창성과 내용의 충실성이 돋보인다고 하겠다. 역사적 발전과 對中國 교류의 두 측면을 함께 중시하는 가운데, 칠지도, 무령왕릉 출토 묘지와 매지권, 사택지적당탑비 등은 물론, 磚, 瓦當, 木簡에 이르기까지 백제 기록문화의 중요한 일면을 무리 없이 究明한 값진 업적이라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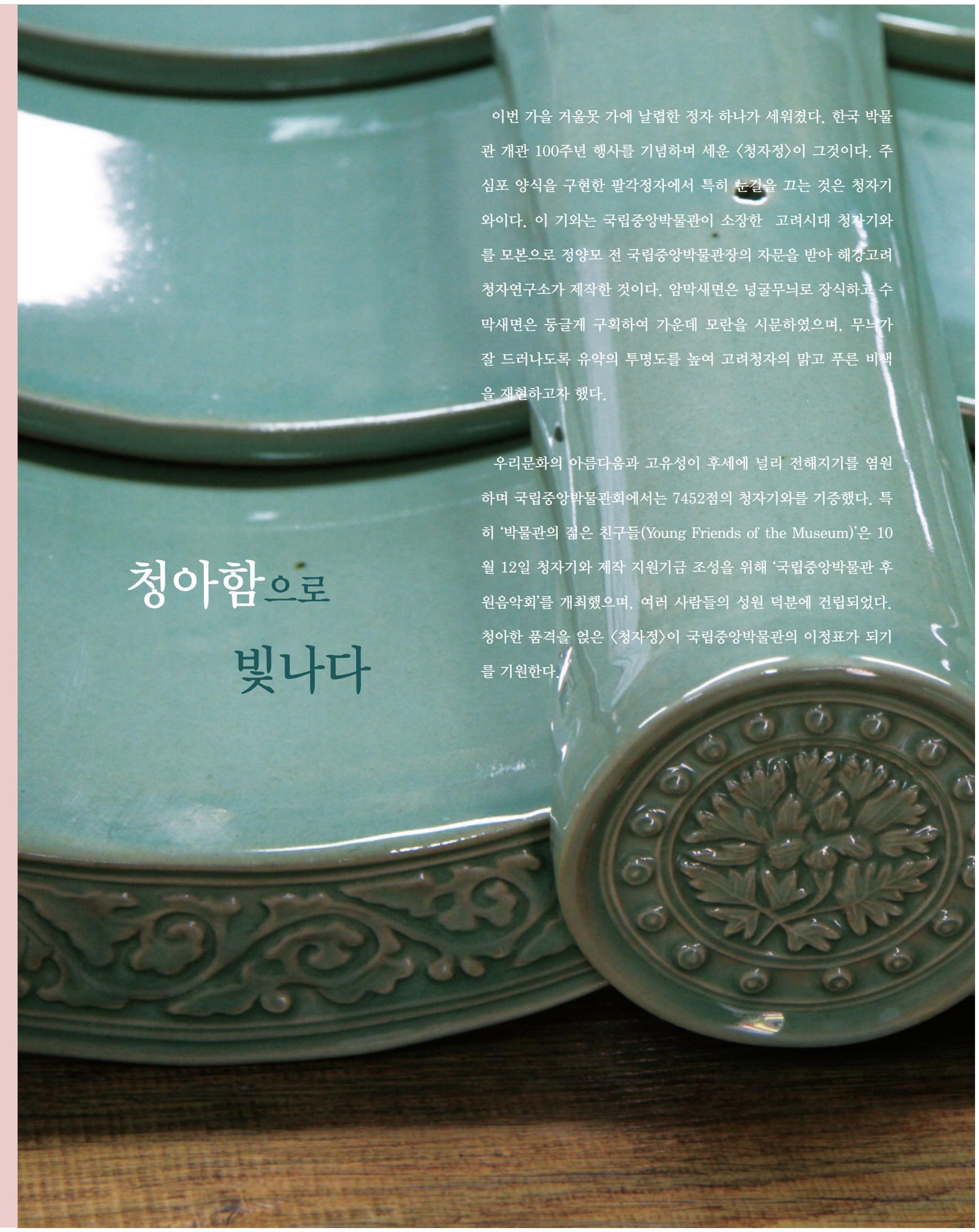
민현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이 연구는 백제시대에 제작된 금석문장 및 명문류 유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먼저 제작시기별·재질별·제작기법별로 나누어 정치하게 분류한 다음, 명문의 기법·유물의 규격·서체 및 문양의 형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학술논문이다. 고고학적 결과를 원용, 백제사의 중요한 한 부분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 이 연구가 백제 금석문 연구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먼저 금석문의 개념과 그 범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금석문의 개념에 대하여는 본고의 머리말에서 이미, 넓은 의미의 금석문 카테고리에서 취한 개념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금석문'의 사전적 어의는 여전히 '금석문자'를 지칭하는 용어라 하겠다. 따라서 금석문자의 범위를 넘어서 무늬나 도안류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반화하려면 金石紋樣 또는 金石紋章이란 어휘를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2) 백제의 죽제 목간유물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관련하여 백제에서는 죽간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면서, 그 원인이 백제의 기후 환경이 대나무를 자생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단정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론의 증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백제 금석문의 서체가 신라의 것에 비하여 일찍부터 세련된 면모를 보였다고 언급하면서, 그 배경이 名迹所藏에 대한 열의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문화적 풍토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논단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역시 충분한 논증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조원래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 청아함으로 빛나다

이번 가을 겨울옷 가에 날렵한 정자 하나가 세워졌다.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행사를 기념하며 세운 <청자정>이 그것이다. 주심포 양식을 구현한 팔각정자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청자기 와이다. 이 기와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고려시대 청자기와를 모본으로 정양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자문을 받아 해강고려청자연구소가 제작한 것이다. 암막새면은 닝굴무늬로 장식하고 수막새면은 등글게 구획하여 가운데 모란을 시문하였으며, 무늬가 잘 드러나도록 유약의 투명도를 높여 고려청자의 맑고 푸른 비색을 재현하고자 했다.

우리문화의 아름다움과 고유성이 후세에 널리 전해지기를 염원하며 국립중앙박물관회에서는 7452점의 청자기와를 기증했다. 특히 '박물관의 젊은 친구들(Young Friends of the Museum)'은 10월 12일 청자기와 제작 지원기금 조성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후원음악회'를 개최했으며, 여러 사람들의 성원 덕분에 건립되었다. 청아한 품격을 엮은 <청자정>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한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배우고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박물관 후원사업·사회교육·자원봉사·공익적인 문화사업 등을 합니다.

## 2010년 사회교육 프로그램 안내

1977년부터 일반국민에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및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고자 개설된 박물관 특설강좌(일명: 박물관대학)의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10년도 제34기 박물관 특설강좌

#### 모집안내

- 모집대상  
 대학원 수준의 강의 수강가능하며 25세 이상 63세 미만으로  
 전통문화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분
- 모집인원  
 화요일 : 200명  
 목요일 : 200명
- 강좌내용  
 역사학, 인류학, 고고학, 미술사학, 불교미술, 사상사, 박물관학,  
 전시실교육 및 고적답사
- 수강기간 및 시간  
 2010년 3월 ~ 12월(매주 1회, 13:00 ~ 17:00)
- 교육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
- 참고사항  
 박물관 특설강좌 수료 후에도 계속적으로 박물관 연구강좌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년 1월 13일(수) 오전 10시부터  
 현장접수(선착순 마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현장배부), 반명함판 사진 2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교육회비 : 420,000원(온라인 입금)
- 신청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국립중앙박물관회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umes.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0년도 박물관 연구강좌 안내

강좌	강의일	주제
고고인류	첫 번째 · 세 번째 화 10시~12시	문화인류학으로 본 아시아
한국사 A	첫 번째 · 세 번째 목 10시~12시	삼국·통일신라시대
동양문화	첫 번째 · 세 번째 금 10시~12시	인도 문화와 미술
세계문화 A	첫 번째 · 세 번째 금 14시~16시	서양 문화사
한국사 B	두 번째 · 네 번째 화 10시~12시	한국의 대외관계와 전쟁
세계문화 B	두 번째 · 네 번째 화 14시~16시	서양 미술사
사상사	두 번째 · 네 번째 목 10시~12시	한국의 사상가 12인
불교미술	두 번째 · 네 번째 금 10시~12시	석조미술과 불교공예
미술사	두 번째 · 네 번째 금 14시~16시	한국 회화사

상기 일정은 교수진과 박물관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인터넷 신청 : 2010년 1월 11일(월) ~ 1월 13일(수)
- 현 장 신 청 : 2010년 1월 19일(화) ~ 1월 22일(금)
- 2 강좌 신청 : 2010년 1월 26일(화) ~ 1월 29일(금)  
 ※ 2강좌 신청은 미달과목에 한하여 가능(인터넷으로만 신청)
- 수강기간 : 2010년 3월~12월(강좌별 총 16회)
- 모집대상 : 박물관회 회원 중 특설강좌 수료생 및 연구강좌 수강생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萬, 金聖鎭, 鄭鎮肅, 金榮秀, 俞相玉 회장을 거쳐 2005년 11월 柳昌宗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柳昌宗  
副 會 長 | 徐載亮  
理 事 | 崔光植 金寧慈 金信韓 金正泰  
朴仙卿 成弼鎬 申聖秀 申硯均  
申憲澈 尹碩敏 尹在倫 鄭明勳  
池健吉 洪政旭  
監 事 | 金義炯 鄭建海  
事務局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원, 청룡 오십억원, 백호 삼십억원, 주작 십억원, 현무 오억원, 천마 일억원, 금관 오천만원, 은관 삼천만원, 청자 일천만원, 백자 오백만원, 수정 이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 ■천마회원

千信一 세종옛돌박물관장  
孫昌根  
하나금융지주 金正泰  
尹章燮 호림박물관 이사장  
SK 에너지 申憲澈

### ■금관회원

尹碩敏 SBS 홀딩스 부회장  
俞相玉 코리아나 화장품 회장  
팬택&큐리텔 朴炳燁  
(주)한섬 鄭在鳳  
(주)STX 姜德壽  
朴容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鄭明勳 서울시향 고문

### ■은관회원

柳昌宗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金鍾漢 (주)종합전기 대표  
成弼鎬 광성기업 대표  
徐載亮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柳芳熙 (주)풍산주력 회장

### ■청자회원

申硯均 아름지기 이사장  
朴仙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田永采 사)한길봉사회 이사장  
金永珉 김&장법률사무소  
玄明官  
申聖秀 고려산업(주) 회장  
權俊一 具在善 Actium 부회장  
南秀淨 (주)썬앳푸드 대표  
李仁洙 수원대학교 이사장  
金榮秀 변 호 사  
胡鍾一 호성홍업회장  
趙炳舜 성암고서박물관장  
愼昌宰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李雲卿 남양유업 전문위원  
金英惠 제일화재 이사장  
李美淑 삼표산업  
鄭在昊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朴海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李起雄 열화당 대표  
辛永茂 법무법인 세종 대표  
辛炳讚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朴載蓮 성곡미술관 이사

李鈴子 (주)GS 상무  
許榕秀 서양화가  
金宗學 갤러리 현대 대표  
都炯泰 柳徹浩  
한국도로공사 OCI 부사장  
李宇鉉 (주)화승 부회장  
玄智皓 컨셉바이동훈 대표  
金芝延 동훈디앤아이 대표  
金南延 M&M(주) 사장  
최철원 국회의원  
洪政旭 경운박물관장  
李明姬 대성산업 전문  
金信韓 재)예울 이사장  
金寧慈 넥스홀딩스 대표  
金正宙 스무디즈 코리아(주) 대표  
金性完 (주)비상교육  
梁汰會 서울대학교 교수  
尹在倫 (주)중로대학편입사 대표이사  
丁恩美 효성그룹 전문  
趙顯相 현대자동차 부회장  
鄭義宣

崔惠玉 보광웨미리마트 회장  
洪錫肇 신세계 부회장  
鄭溶鎭 코스테크 부회장  
洪誠杓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崔世勳 주)서릉 대표  
金承謙 금호아시아나 상무  
朴世昌 (주)동남유화 대표이사  
崔杜準 NHN(주) 이사회위원장  
李海珍 주)엔씨소프트 대표  
金澤辰 목금토갤러리 관장  
李善眞 광제사 주지  
庚圓

許正錫 일진홀딩스(주) 대표  
薛允碩 대한전선 상무

李英純 (주)시몬드 회장  
朴正遠 제일모직 전문  
朴殷寬 서울가든호텔 부사장  
金載烈 한국 고미술 자기연구소  
李教祥

### ■백자회원

李京姬 수필가  
李興杓 국립중앙박물관회 직원  
金惠蓮 대학 강사  
崔料南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李健茂 문화재청장

柳憲辰 코한 인터내셔널  
高錫銘 (주)크린텍 회장

李芝衡 변호사  
金京姬 (주)Peeona 조정 대표  
韓惠舟 화정박물관 관장  
李胤基 그랜드힐튼호텔 대표  
朴榮圭 용인대학교 교수  
(주)서울옥션  
柳英芝 유금박물관 기획실장  
俞承熹 코리아나화장박물관 부관장  
高基瑛 (주)금비 대표  
池健吉 동아대학교 교수  
朴善正 DLMI 상무  
梁洪碩 대신증권 부사장  
吳勝敏 동일산업 상무  
朴禎原 두산인프라코어 전문  
金倫壽 지리산문화원 관장

## 책을 만들면서..

성당의 웃음이  
낙엽에 까지 이어지는  
그 모습...(水)

아무리 무장해도 겨울외출은  
추위와의 싸움이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코 끝을 스치는 차고 알싸한 공기  
나는 이제 바람처럼 자유롭다.(河)

늘  
시작은 설레고  
끝은 아쉽다. (정)

불혹을 넘기며 만난 우리들  
어쩔 이리도 정이 도타운지  
모였다면 어느새 까르르 웃음부터  
참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밖에는.(愛)

늦그릇은 닭을수록 빛이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내 삶을 가꾸어준 박물관사람들과  
그녀들이 고맙다.(리)

처음이 어렵다 했는데  
유종의 미 역시.  
함께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瑚璉)

가물 따라 흐르다보니  
또 다른 곳에 도착할 시간이군요.  
고운 정만 담백 들었던 박물관 사람들  
안녕, 하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나요. (진)

그럴 듯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려나가기.  
한 것은 없는데 이름 한 줄  
올려 놓는다. (延)

\*\* 회지에 글을 실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 2009년 12월 9일

발행처 | 국립중앙박물관회

발행인 | 유창중

기획 | 신병찬

편집위원 | 정미희·정혜리·조애경·진수옥·하영남

진행 | 강신애·서승연

발행처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국립중앙박물관회

전화 | (02)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

\*\* 본 회지의 내용은 본 회의 의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지를 받아보고 싶은 분은 국립중앙박물관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